

>>> 주한미군 철수 투쟁

주요 의식화내용 : 주한미군이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미국
방도 : 주한미군의 인행을 폭로, 성폭력 범죄를 규탄하는 별표 사진전
5 13 지역 반미집회, 5월 한미당 등 계기별 투쟁에서 전경과 여성, 여성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구호를 들고 투쟁에 결합하자.
- 매 시기 중앙에서 의식화 내용과 구호 제출

>>> 여성통일선봉대

시기 : 8월 1일- 15일
통일선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 조치가 안 되니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소홀히 생각하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여야 한다.
방도: 통일대 공간을 일관성을 단연시키고 대중적으로 여성과 통일을 알리려는 공간, 대중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할 것이다.

>>> 여성통일한미당

시기 : 8월 15일
전여대협이 00년도에 처음 제안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행사이다.
더욱 내용성 있고 많은 단원들이 모여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자.

>>> 10 28 윤금미 씨 추모 13주기

추모 주간을 설정하고, 윤금미씨에게 저지른 주한미군의 악행을 잘 알려내고, 분단 60년간 주한미군 범죄와 인행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자리로 만들어가자.

>>> 논쟁 성명 사업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여성의 요구와 입장에서 풀어나가. 여성들이 반미 민족중조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투쟁을 왜 해야 하는가, 여성과 통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토론을 풍부하게 가지자.
- 대학별 논쟁 사업을 활성화하자.

>>> 반미 투쟁홍들

5 13 반미 행동의 날을 통해 지역 총알기 -> 5월 말 한총연 자주 통일 총선군 대회 -> 호순이 미선이 추도 6 13 반미투쟁대회 -> 미군철수를 위한 전민족운동기간(6 13 - 9 8) 설정 -> 8 15 민족중동행사 -> 9 8 주한미군 철수 투쟁대회

>>> 대동강 어린이 빵공장 사업

○ 의의
사업을 통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자.
통일조국의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통해 연공연봉의식의 확산을 이루어 내자.

○ 방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대중사업과 결부해서 모금을 진행하여 재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교수, 교직원, 과반 학생회 등 학내 계 세력을 발동해서 그들의 작은 실천으로 통일이 기어올 수 있게 만들자.

○ 결속

조직적으로는 다양한 학수들을 묶어내는 공존위 학내 운동본부의 조직화 사업으로 결속하자.

[참고] 통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함께 키웁시다!

통일을 염원하고 후대를 책임지는 여성의 이름으로 복된 아이들을 위해, 평양에 빵공장 짓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마음을 모아 빵공장을 만들고 매일 빵 만들 재료를 보내주면 복된 여성들이 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을 복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온 겨레가 호뭇해질 것이고,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이워가는 통일의 길은 좀 더 앞당길 수 있겠다는 소중한 마음 담아왔습니다.

*평양 빵공장 설립 추진 내용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 여성위원회'(기침. 이후 북녘 어린이 영양빵공장 운동본부)의 협의로 남과 북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북측은 평양에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부지 및 건물과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은 빵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자가 발전기 포함)일체를 지원하고 전 재료의 공급을 통해 빵을 생산합니다.

1. 빵공장 건립을 위한 증자돈 내기
공장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증자돈을 후원합니다.
2. 빵 생산을 위한 1주차(5천원) 후원하기
매달 지속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나아가 빵 생산을 늘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비용을 후원합니다. 5천원이면 빵 3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5월중 이남에서 빵공장 건립을 위한 대규모 방북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일/위안부'투쟁

1)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우경화 반대

일본은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는 나라이다. 그들은 40년간 자주성을 유린당한 우리 나라에 대한 진실 어린 사과도 실상은 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공공연히 찬양하며 그들의 위례가 높인 아스쿠니 신사를 벌써 및 차례 참배해온 나라이다.

○ 현황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최근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대동아 공영권,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미 라이스 국무장관의 일본의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 지지 발언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일본은 전쟁보상금의 1/10도 채 내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국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의 경찰이자 자칭하는 미국이 눈감아 주지 않으며 될 법 하지 않는 일이다. 자민당 정권은 미국에 빌붙어서 50년 넘게 단 한번의 정권 교체도 없이 꺼져가는 생명을 유지해왔으며, 일본을 미군의 아시아 주둔 전락기지로 내주었다. 미일 연합의 전쟁책동, 우경화현상이 심각하다.

○ 방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대한 총여학생회 차원의 선전의식화, 성명 사업, 행동진 진행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00만인 국제 연대 서명운동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한국, 캐나다, 호주,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의 참가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진행 중이다. 서

10

명운동 총화는 1차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참석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전달, 2차로 6월 92차 ILO총회시 ILO사우투쟁에게 전달할 예정.
전날 1차로 11만명을 진행한 상황, 여기서 전여대협은 4000명 가량 진행하였다. 6월까지 집중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 연대 서명을 받으면서 이 투쟁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가지자.

○ 방도

- 방일 대표단 전여대회 참가
대표단 활동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 민족적인 해결과제임을 적극 알려내자.
- 6월 말까지 총여학생회 모든 사업과 결부시켜 일상사업으로 진행하자.
통일연대 여성위원회의 차원에서 국제연대서명운동 총화시기인 6월까지 격주마다 서울 광화문 역에서 하는 서명, 선전전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참가하자.
-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별로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수요시위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투쟁과 흐름에서 일본군 ‘위안부’해결 투쟁이 끊이지 않도록 집중해서 만들어가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하는 반일 마당사업을 학교에서 진행하자.(강연회, 연극, 할머니 증언 등)

대중사업에서는 이렇게 진행하자

- 생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강연회, 증언대회 진행
-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연극 ‘반쪽으로 날아온 새’ 초정 공연
- 김학순 할머니 지문초상화 활용
- 여성부 사이버 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방문을 통한 사진, 영상, 문서자료 활용
- 5월 대동제에 민족자주 반일 역사관 등의 관 사업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를 알려내자. 서명운동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자.
-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계신 경우에 자가자원활동화 모집 사업 진행, 위안부 관련 소모임 봉사원 꾸리기.

○ 총화저점

- 해방 60주년 맞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총시다발 집회 및 전국평화대행진
일시: 2005년 8월 10일
- 해방 60주년 기념 주간
일시: 2005년 8월 8일- 15일

■반성폭력 투쟁

1)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방지- 대학문화에 성 평등 관점 심기

- 새터, 환영회, 모교제, 대동제 등등에서 제기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다양하고 끊임없는 활동을 벌이자.

2) 교수성폭력에 대한 제기를 하자.

시기 제안 : 5월 대동제를 즈음하여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실시(좋은 수업 만들기)
교수성폭력 신고기간을 두고 사례 접수, 신고를 받음
의식화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교수 성폭력 사례 발표, 교수 성폭력의 유형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교수성폭력 신고 시정 요구, 이후 강사 채용에 있어 제안
상담실과 연계하여 반성폭력 소책자 만들기, 특강
양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교수님 발표 사업

[2004 대학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04년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전국 138개 대학에서 취합한 통계
- 자료비교에 그치는 경우 다수
- 전반적으로 전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많음.
- 학생, 교수 참여율 중 특히 학생 비율이 저조. 학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는 듯
- 대학 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들은 대체로 교수와 학생 대상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교수 대상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기 위한 대학 관리자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

중앙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빠른 총화와 의식화에 있어 도움을 주고,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생리 휴강 의식화를 위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

[참고]

- 생리 휴강이란?
생리 휴강은 생리를 하는 여학우에 한해서, 한 달에 하루 생리통이 가장 심한 날의 결석을 공결로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학우들이 생리기간에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학)학생회와 학교와의 협의 하에 실시하는 제도이며 동아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어떻게 시행하나?
동아대의 경우,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두 단위의 공동공약으로 내건과 당선 이후 공동으로 요구하였다. 동아대가 처음 생리 휴강을 시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꾸준한 의식화사업과 사업처리가 학내 분위기 형성에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문제가 학교 안에서 무슨 기술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무뎠다고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우들에 대한 의식화가 가장 중요하다.

상반기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여성의 생리, 생리 휴강과 연계시켜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자를 만나서 상반기 동안 꾸준하게 사업하였고, 학생처장이 직접 교수들 회의를 들어가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권을 내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단대별 학과로 각 차 장들이 함께 진행하는 교수회의에서 통과시켜게 되었다.

남학, 수업이름, 교수이름, 학생이름, 학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줄이에 교수처장과 총여학생회와의 도장을 찍어 교수님께 제출한다는 방식을 총여학생회에서 건의하였고 그것이 채택된 과정이다. 하루를 다 결석하는 여학우도 있고, 가장 아플 때 몇 시간을 빼서 한 강의 정도를 빼는 여학우도 있다. 이번 주에 이어서 쉬웠으면 다음 주에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라도 학기가 끝나기 전에만 내면 교수님이 일관 잘산하는 데 반영한다.

학우들이 여성문제의 다른 사안보다 아주 관심이 많고, 하루에 5-7명 정도로 꾸준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리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되는 것이 사회 현상이다. 이 땅의 절반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일 수 없다. 생리통이 극심해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여학우들도 많이 있으며 학교는 그나마 몇 개 없는 여학생 휴게시설을 제외하고는 맘 편히 될 곳도 없다.

생리 휴강은 또한 단순히 이어서 결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노동자들도 생리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는 켈지시켜 버리는 모성보호에 대한 물어해를 비판하면서 대학 내에서부터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나?
여학우들은 아주 관심이 많고 환영하는 편이다. 시행 초기 남학우들의 반발이 거세고 가끔 남녀 분리제 사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꾸준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학우들이 이 제도를 남용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자신의 수업을 포기하면 수업을 듣지 못한 자신이 손해볼 것이 때문에 남용하는 여학우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여학우들이 하루 중일 공결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플 때 수업 하나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교수님이 학기 마칠 때 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남용된 경우가 있다라도 금방 드러난다.

자신의 주기가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일괄집결(캠버스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주요단에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 여학생휴게실 신설 및 권리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육아보육시설 마련의 요구를 하듯이, 대학 내에 여학생휴게실이 될경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선전의식화, 투쟁을 벌여내고 공간을 마련해야만 한다.

<추후 전여대협 홈페이지에 각 대학 여학생휴게실 관련 란 마련 예정>

- 여성학 강의 :

예전에 선배들이 다녀왔던 성과가 후회되는 지점이 있다. 여성학 강의 개 증설을 요구하고, 향후 여성학 강의 필수 학점제를 만들기 위해 학우들의 의식지점을 파악하여 의식과 대책을 마련하자.

■전여대협 핵심사업

>>> 11기 전여대협 총회와 출범선언 및 10주년 기념대회

- 일시 : 4월 23/24
- 대의원들의 드높은 결의결심으로 준비위 6인, 본 조직 결성 10주년의 역사를 긍지 높게 총회하는 장으로 만들고, 향후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선포하고 여학생운동 대중화, 새학생운동 실현의 방향을 내오는 장으로 만들고.
- 10주년 기념대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10년사 정리위원의 발족.
- : 향후 10년사 정리를 해내고, 65년 안에 반드시 전여대협 역사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에서는 역대 선배들과의 만남과 연계를 통해 대학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잘 정리 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모아서 전여대협의 역사를 정리한다.

>>> 5/1 여성노동 박람회

- 4월 설문조사의 흐름을 이어서,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문제의 심각성, 여대생들의 고민과 준비는 어떠한지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단원에서 실시나 자보, 포스터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중앙에서 내용을 제작한다.
- 5월 노동절을 준비하면서 전 단위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와, 여대생 실업의 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얘기해보자.
- o 방향 :
 -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려내며,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하자.
 -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을 반미, 반제투쟁으로 상승시키자.
- o 의식화 내용 :
 - 노동의 중요성, 여성 노동의 역사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세계주의 경제침탈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여대생 실업의 심각성
- o 상 : 중앙에서 내용을 제출하면 단위학교별로 만들자. 전여대협 중앙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몇 종 포스터나, 선전의식화 내용마련, 눈을 끄는 조형물에 대한 창작 등을 제출할 것이다.

>>> 전국대학생 5월 한미달

- 학생 계 세력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자.
- 전국단위 여학단위에 5월 한미달을 대대적으로 제안
- 틀을 만들고 사람을 맡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고 고민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대학생이 모이는 행사를 준비하며 사전에 성폭력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함께 내용을 마련해 나간다.
-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 토론, 세미나 (대학 내 여학생운동의 발전방안,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위한 방안 등의 토론회) 를 통한 내홍생산을 중심으로 진행하자.

18

자주듣기/5월 CD 제작

>>> 여성문제 학습을 위한 「어름 여성강좌」

- 일시 : 7월 말
- 기존의 일문 수련회 형식이 아닌 여성학학습과 여성정세를 알아가는 교양의 자리이다.
- 이날 내에서 여학생운동을 하는 많은 세력들과 연대하여 함께 한다.
- 성폭력/민중과 여성/성매매/호주제/여성노동/섹슈얼리티 등등의 내용을 커리로 잡아 여학일꾼들의 사상적 수준을 높여내자.

>>> 여름 농활

: 4자연대 실현, 학공농활에 대한 고민을 높여서 여학생회, 여성농민회 역량 강화 [연대사업 계획 참조]

>>> 7월 2회 여성역사기행 - 그녀들의 이야기, 'Herstory' 를 만들어보자!!!

- o 목표
- 2004년 진행한 '1회 여성역사기행' 사업의 성과를 이어 2회 여성역사기행을 통해 대학 여학생운동 핵심인자를 육성 발달한다. 대중적으로 여성들의 역사를 알려내고 여대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향상시킨다.
- 여성학 소모임, 학우들이 여성운동을 생활감 있게 받아들이길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꾀한다.
-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 o 의의
- 기행이라는 사업을 통해
 - 잊혀졌던 여성의 역사를 알려내고
 - 주제적인 여성상을 모색하면서
 - 대학 여학생들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 남학생들도 여성운동을 이해하게 된다.

- o 일정
- 일정은 작년의 코스를 조금 줄여 다시 시행해보는 것으로 하였다. 한해 더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다음해부터는 지역별, 학교별로 진행하면서 가까운 지역여성인물 발굴, 지역역은 등 활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날짜별 세부 일정
- 10(일) 경계 허물기, 마음 트고 함께 꿈 가꿔가기
- 1시까지 집결, 조 편성, 여성사 전시관 - 여성들의 삶의 발자취 둘러보기 (나혜석 다큐멘터리 관람 포함), 한국 여성사, 나혜석의 여성해방론 관련 교양 및 토론, 알 풀이 진행 (출발을 위한 문화 행사 - 베틀꽃기와 풍동제 [만들기])

- 11(일) 상차, 여안동, 회방
- 2회 여성역사기행 발대식,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 관람, 할머니와의 대화)
- 여성과 전쟁에 관한 세미나, 강원도대 이동, 자아 성장 미술 치료 프로그램

- 12(일/화) woman power를 믿는다
- 허난설헌 생가 방문 (내안의 평온함을 충전하는 2인 1조 소나무 산책, 허난설헌에 대한 강연 듣기, 허난설헌 백일장), 초당 두부 점심, 경포대 해수욕장, 나의 생애사 쓰기, 서울로 이동

- 13(수)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다시 함께 가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최하고 참가, 해단식 및 뒷풀이 이후 해산

- 세부추진일정

■일상사업

- o 중요성
- 대중을 실제 의식화 조직화 하는 우리들의 활동의 정형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무에 바빠 총 단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많다.

학우만남 접촉면을 넓히고, 일상적 학우대중 만남을 통해 학내 총여학생회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 여학우들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1 : 1 학우만남을 통한 실질적 의식개혁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일상사업을 통해 학우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 o 방도
- 대학마다 고민하고 있는 00 요인 카페 사업이나 단과대학 이동 총여학생회, 00영화제, 여성의 몸에 관한 차 마시기 등
- 그 주마다 여성 관련해 이슈화 되는 내용을 학내 사인과 잘 결부시켜 내용과 주제를 잘 잡자.
- 형식을 다양화하자.

정책국 사업

모든 사안과 사업과 투쟁을 볼 때, 여성의 관점에서 본 내용들을 꾸준하게 제출할 것이다.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여학생운동 주제별로 여러 명의 지혜를 동원할 수 있게 관심 있는 일꾼들이 모여서 토론을 조직한다. 여학생운동 내용을 생산하는 체계를 가지고 전여대협의 장기적 정책과 방향도 내어준다.

■정책에 맞게 교양 자료집 발간 사업과 논쟁사업을 일상화.

■신문기사의 대중적 활용과 여학일꾼 토론

- o 과제
- 성폭력/여성노동/호주제 등의 기사의 내용 분류 명확히 해서 목록화 저장하자. 그리고 기사 모음 안에는 소중한 자료로 쓸 수 있는 칼럼과, 사진과 그림, 도표 등의 데이터화가 많이 있다.

- 여성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기사가 아니라 어떤 토론이나 뉴스, 행사의 예고와 사후보고 등 연속성을 가지고 실제 사업계획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두 세 번 써야 하는 것이다.
- 일꾼들이 일요일 아침에 한 주간의 여성뉴스를 일꾼들에게 배일민을 하는 정형을 마련하자.

- 수 있도록 하고 중앙본부에서는 책임 있게 총괄하고 예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대중의식화의 유력한 공간이라면 농활을 통해 여성농민의 민중성을 배우고 농촌의 기본정신을 이해한다든지, 여농 주제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외, 정보통신 사업

1. 인터넷 사업의 혁신의 혁신을 이루자.

합동연대신문 제작 방법 변경 바꾸기.

- 전역대협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여학생운동 대외 토론투과 긍정적 경제 활성화
- :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환경을 가지고 기존 학교들이 자기들 사업과 투쟁을 옴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이 했던 투쟁을 잘 알리려 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들의 소속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과, 우리가 진행했던 투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여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사업과 의식개혁을 위한 투쟁이다.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관리
- : 없어서 컴퓨터만 똑똑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이다. 오프라인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우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업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에 주목을 돌리게 되면 학우들이 접근하기 더 쉽고 홍보도 더욱 잘되며, 더 활발히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방도
- 총여학생회 소식이나 전역대협 신문기사를 일꾼, 학우들에게 꼭 정기적으로 메일링 하자.
- 홈페이지나 카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좋은 여성학 문서, 총여 회의록 등을 올리자.

2. 학내의 언론사 활용

- 전역대협은 인터뷰, 글 기증, 기자회견 등을 적절히 배치, 활용하여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중들에게 전역대협의 이름으로 쉽게 접근해야 한다.
- 총여학생회는 학내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에 고정적으로 참여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학우 의식 높이기.

연대사업

- 상층연대에 대한 중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차성 담보가 중요하다.
- 1여학생회 1연대단위의 설정을 통해 기층연대를 활성화하자.
- 정세에 맞게 적절한 연대투쟁하자.
- 사안별 연대(농활, 반성특위, 조국통일)를 활성화하자.

■여농학 연대 투쟁

여성농민의 여농생태 강화와 관련 새로운 시도와 정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만큼 좀 더 용기를 내서 03년 진도 농활대처럼 도별 1개 마을을 여성농민회와 여농생태가 책임지는 농활대를 꾸려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시 군 여성농민회-단위 여농생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역할을 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농활성특위에 대한 농민-학생교양을 더욱 잘 진행해야 한다.
- 실질적 농활연대를 일구기 위해서는 여농 주체가 세워지지 못한 하더라도 다른 주체를 세워서 고민을 늘어내야 한다.
- 전국농학연합회에서 농활성특위에 대한 교양과 자기규약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최근 및 년간 운영해왔던 <농활성특위 신고센터>를 중앙에서 형식적으로 꾸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시, 군, 마을까지 운영될

조직국 총노선

1. 총적목표와 방향

- 1) 목표
- 여학생운동의 위상강화와 대중화로 전역대협다중의 기세를 일취하고 드높인다.
- 세가지 사업과 전문성강화로 핵심일꾼들의 역할을 높여내고, 여학생운동의 계승을 가져온다.
- 여학생운동내 교류와 연대로, 전역대협을 확대강화하고, 새학생운동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간다.
- 대외내 전일꾼을 상대로 여성운동의 이해를 넓혀준다.
- 2) 방향
- 단위상황에 맞는 기층건설과 소모임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내어온다.
- 시기별 점검으로 지속호몰을 만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긴다.
- 일상적인 만남과 대중사업을 통해 학내 총여학생회의 존재감을 높여내고, 위상을 학생회 안팎으로 강화한다.
- 내용적 담보와 조직의 양적확대로 새학생운동을 만들어간다.

2. 핵심내용

<사상을 튼실하게>

여성문제를 관철한 시각으로, 단지 예견과 비교하며 이렇다는 식으로 다가가는 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에 부쩍 여성관련 사안이 표면화되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이 보인다. 우리사회의 여성운동의 한 핵심인 우리에게 더욱더 올바른 관점과 원칙으로 연결고리와 중심 고리를 잘 찾아내는 것이 요구됩니다.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과 여성정세는 여학일꾼의 기본입니다.

■신문기사보도

신문기사 하나라도 여성정세에 대한 파악과 일꾼 학습 교양이 충분하다. 매우 토론과제 제출을 통해 여학생운동 내용 생산을 위한 활기한 토론을 진행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무슨 사회적 현상이나 주제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리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혹은 내재된 여러 여성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궁극 원인과 해결책까지 무엇으로 할지 등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있어 우리의 관점과 입장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학생들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이루어 내는 이 과정은 지금까지의 불건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약하고 순종적으로 길들여진 채에서 진정한 자주적 여성으로 거듭나가 할 것입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 여성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여성해방의 경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고요한 여성문제를 풀이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 할 필요가 나오고 있고, 한 단계 더 앞선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보완/발전시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정립하고,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 각 대학/지역의 조직주체 세력의 진행

어떤내용으로 실현가능하게 하는것인가?

2005년 여/농/학 연대 큰 틀의 목표

- 1) 양성평등 의식화
 - 성 구분 없고 양성평등한 농활대를 만들어가자.
 - 농촌 내에 남녀평등한 틈과를 정착시키자.
- 2) 여성농민회-여학생회 조직적 역량강화
 - 여성농민회-여학생회 양자간 연대를 강화한다.
 - 4자가 함께하고 보강하는 연대의 틀을 지속적으로 가지간다.

<방도 및 사업>

- ▶ 농민회 간부반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
- ▶ 농활성특위 예방을 위한 사업
 - 사진 농활학교시 교양 진행
 - 자료집에 교양 자료
 - 성폭력 예방 및 상담 주체를 학교단위서 꼭 세워낸다.
- ▶ 분반활동의 제언
 - 여성농민만이 잘 진행되기 위한 전체농활대의 담보
- ▶ 마을별 반성특위 스티커 부착
- ▶ 여성농민회-여학생회 혁공농활 지역 여농과 여학생회 -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여 1년에 2-3 번 정도 찾아오고, 1박 2일 호별농민, 강남 선전전 진행

<농민회 향후 투쟁 호몰>

6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 '협상 무효, 국회비준반대, 전연체협상 실시' 요구를 들고 총력투쟁을 벌여낸다.

11월 APEC회의 및 서방방한 저지투쟁

- 반세계화, 반미투쟁에서 모두 중요한 투쟁
- 농민, 학생 각 부분의 요구를 뛰어넘어 전 민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12월 WTO 홍콩까지의 무산투쟁

여농생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 농활성특위
 → 여성농민회
 → 여성농민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 여성농민회
 → 여성농민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 여성농민회

여농생태로
 마을별 주체를 꾸려서
 농민회와 여학생회 연대를
 하는게 중요하다.
 - 농활성특위-여농생태
 - 농민회-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기
 - 해서야야야야야야야야

- 참여학생의 기증건설을 위한 조직화의 틀과 방법 마련
- 간담회를 통한 기증건설, 확대운영위 강화, 여성 주제 소모임 활성화 : 여학우들을 책임지 위해서 기증건설에 대해 일꾼들이 결의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소모임, 집행부 뿐 아니라 편집부, 영상단, 반성폭력 지킴이 등등 참여 두리도 다종다양하고 수준이 다른 많은 사람들 뭉칠 수 있는 틀이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중앙집행 지도 강화

- 모범 전파를 위한 <사례> 모으고 정리, 적절한 자리에서 발표회 등 모두가 공유하게 하자.
- 모범 배우기 운동의 확산 : 회의나 수련회, 총회 등 앞으로 모두 모이는 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문서 사례화, 발표를 통해서 모 범사업을 전파하고 전체 학교도 확산시키자.
- 학교의 목표와 대학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맞춤 지도

■대외세계

기증어학우의 생각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모으고, 참여학생회의 사업을 기증어학우까지 알려내고 만들어갈지 학교의 현황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고민하여 봅시다.

1. 과외학-단대여학-총어학생회로 이어지는 선일적인 학생회 체계

- 정기적인 총어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자.
- 시기별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증어까지

2. 위원회(여성,성평등) 형태의 내용중심의 세계

--> 각 단위학생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모임

- 주제는 많은 학습과 사색으로 단위상황에 맞는 형태와 흐름을 내어준다.
-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소모임원들의 소속과 고민을 높여준다.
- 매 시기/사업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 참여학생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잘 살펴내자.
- 3~4월 집중 모집시기 활발한 흐름을 내어주고, 지속적으로 모집과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확대강화

전여대협의 강화와 학교의 발전은 하나로 묶여있다. 학교에서부터 과외학생회부터 총어학생회까지의 선일적인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학생회에서 담아내는데 부족한 내용을 더 풍부화시키고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도록 하자.

- 대외세계 확립(중앙/총어학생회장단 회의/총회)
- 전여대협 이목을 끌고 벌이는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투쟁
- 여성문제 소모임 건설 : 주제, 커리, 정형을 마련하는 것
- 각 주제는 앞으로 각 단위의 3년 전망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모습을 냉철히 파악하고, 이어나가야 할 모범적 모습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 잘 정리하자. 이에 맞게 3년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어오자.

<일꾼 혁신>

■기세를 높이자

무될 수 없다. 최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거기다 전략적으로 집중할 핵심 단위를 선정하자. 단위에 그런 고 민들이 있는 데가 많으니 발굴해보자.

총어학생회 건부와 소모임 구성원의 생활의 분리는 소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크나큰 한계로 나설 수 있다. 단위로 내려가서 나와 친한 일꾼들을 주제로 세우고 새내기를 받아 그 새내기가 다른 친구들을 조직화 하는 과정으로 만들자. 운영하는 데 있어 방도와 커리큘럼, 활동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어학생회가 없는 학교 총학생회 차원에서 향후 어학생회 건설을 목표로, 혹은 학내 여학우 조직화를 목표로 해서 여성주의의 소모 임 재정, 공간 지원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소모임의 역할과 2005년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

1. 소모임의 위상과 역할

- ① 학우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묶는 생활공동체 단위입니다.
- ②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모아가는 단위가 됩니다.
- ③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를 형성하는 단위입니다.
- ④ 모든 남학우 여학우들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⑤ 실질적으로 많은 단위에서 어학생회 일꾼을 배출하는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⑥ 학생회 강화에 근간이 되는 대중조직입니다. (자기 본성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는 단위)

2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

- ① 기증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② 핵심발굴과 양성의 장이 된다.
- ③ 어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

3. 2005년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과 전략적 고민

1) 어학생회 현황에 근거해서
단과대나 과/학부에 어학생회 또는 주제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학생회 일꾼들을 발굴하고 단련할 공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2005년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소모임 건설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소모임을 건설하고 어학생회 두리의 인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2) 소모임 건설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증 단위 건설을 꾀해야 한다.
총어학생회, 단과대 소모임 건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증단위 건설을 꾀해야 한다. 그에 따른 계획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실제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4 2005년 소모임 건설을 위한 제안

- 1) 하나 - 기행 소모임을 건설해봅시다.
- 2) 둘 - 2005년 소모임 학교

'어학생운동이 즐거움과, 스스로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자랑스러움' 혹은 '지치고, 부담스럽고, 자신도 없는' 이 두 가지의 모습중 지금 나의 모습은 어느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전국대학의 어학생운동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우리는 지난 십년이 넘는 역사와 성과를 '우리들'이라 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지점을 오히려 극복하여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을 내어오는 밑거름으로, 성과는 더더욱 잘 이어가도록 합시다.

- 전여대협다운 것을 기세 높게 만들어갑시다.
어학우들의 자주성을 책임지고 높여내는데 주체가 되어왔던 전여대협의 자부심은 16년이 넘는 역사와 기간 성과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해서는 투쟁과 사업이 어학생운동의 역사였던 전여대협! 미개척지를 가는 개척자의 결심으로 우리 어학일꾼들의 기세를 높이 세웁시다. 어학일꾼과 함께 한때 주변일꾼들도 덩달아 기세가 높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 생활기증 : 어학일꾼들이 비타협적인 생활과 규율을 가져야 한다. 자기 단위에 맞는 생활 기증에 대한 구호를 내어오자.

- 기간어학운동은 내실있게 평가하도록 합니다.
각 학교, 지역에서도 전여대협 10년사 정리와 함께 기간평가들 잘 하고, 성과와 극복지점을 승계/지양하여 어학생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앞 어학일꾼 선배들과의 만남은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연락처정도는 빼고 있도록 합시다.

■일꾼 재생산

조직적 역량은 바로 사람에서 나오는 것! 함께 고민하고 좋아할 일꾼이 나의 옆에 얼마나 있는지, 23년 후 미래를 맡을 후배일꾼을 어떻게 만나고 이끌지 생각하여 봅시다.

1. 새내기 사업
의의와 중요성을 안에서부터 인지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내자.
-구체적 계획 자료실 등록-

2. 대외세계 확대와 함께
대외세계를 잘 세워내는 것은 결국 각 단위에 주체를 세워내는 것을 말한다. 대외세계를 잘 세워내는 것은 총어학생회 사업을 단위에서부터 만들어가고 끌어가는 사업적 성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 각 과/단위로 이어지는 체계를 어학생회/ 위원회 일꾼의 내용적, 사상적 담보와 실천으로 일꾼재생산의 과정으로 잘 가져가야 한다.
- 대표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가야 하며, 학습을 강제해준다.
- 총어학생회 사업과 투쟁 등 전반흐름에 함께 해나갈 것을 꾀하며 여성운동의 이해를 넓혀주고, 행동으로 나설게 한다.

소모임 건설(★★★)

기증건설과 소모임이 어학 단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강조하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재생산과정이 되어야 한다. 소모임 건설의 역할-일꾼 재생산,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결실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어학생회 일꾼들이 직접 지도하고 총화하면서 하자. 조직 확대 강화사업으로 메시기별로 내용을 제출, 총화, 점검하자. 잘하고 있는 단위의 모범과 사례에 대해 일반화 시켜나가자.

일꾼들의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 소모임 건설의 내용과 방법 등은 이미 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소모임 건설을 기증건설과 연결시켜야 한다. 경희대의 경우처럼 단과대 파차원의 소모임을 꾸리는 것을 권장하고 그럴 꾸릴 수 있는 주제들을 최대한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에만 꾸리는 것으로 하다가보면 총어의 역할도 없는 상황에서도 꿰어일기도 하고 배가 되는 속도도 빠르지 않다. 사람을 단위에 내려 보내는 식이 아니라 단위에서 사람을 만들어야한다. 순전히 우리 일꾼들로만 다
26

[보론1] 새학생운동 실현

건준위 6년, 본조직 결성 10주년!

16년의 자랑찬 전국 어학생운동 최선두주자로서, 새시대 새학생운동 실현하자!

새시대 새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6.15시대이다.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변화의 시대는 읍살하고 어두웠던 절망과 반쪽의 적대적 시대가 아닌, 민족의 앞날이 찬란히 빛나고 민중이 주인 되는 새세상, 자주통일 새세상이다.

자주통일 새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대학사회는 어떤가?
그간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지성의 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
열정과 패기로 끓어오르고 시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던 대학은, 과감하고 치열한 저항과 투쟁을 통해 반민주와 파쇼독재를 뒤엎고 새역사 창조에 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운동은 6.15시대의 요구에, 대중들의 높아진 의식에 빠르게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무비판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 대학개혁 실패, 개인주의 우상화로 인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학생회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한 상황이다.
학생회는 학우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복원하고, 강화해야한다. 새시대 새학생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학생운동의 자랑찬 역사를 긍지 높게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진정한 학우들이 학원과 사회의 주인으로써 당당히 서는 것이 새학생운동의 기초이다.

새학생운동 실현에서 전여대협의 역할은 가장 알차리, 최선두이다!
전여대협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가부장제에 맞서 당당한 세상의 절반 여성으로써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성된 전국 유일 여대생조직으로써 87년 서울지역, 89년 전여대협 건준위, 95년 1기 출범의 자랑찬 16년의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올봄에 본조직 결성 10주년을 맞이한다.

전여대협의 결음결음은 여성 민중의 높아진 자주성 실현의 역사이며, 현재 여성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진출의 반가운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50년만의 속원이었던 호주제 폐지 등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 여대생들은 차별과 불평등구조에 익숙하게 길러진 것이 아닌 민주와 평등의식을 가진 자주성이 대단히 높은 새세대이다. 전여대협은 이러한 새시대, 새세대들을 잘 모아내야 한다.

여성 민중들의 처지와 조건은 어떠한가.

사회 곳곳을 자세히 둘러다보면 여성들은 아직도 사회학자로 취급되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중 무려 70%가 여성이며, 자영업을 비롯한 소규모 노동현장에서 추경하기 어려운 각종 노동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피폐하고 불안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장 내 차별과 성폭력 역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류 재생산과정인 출산, 육아보육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지 못하고 개별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상황과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로 인해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성의 개인적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

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빈곤과 신자유주의 가속화는 곧 여성의 빈곤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채용이 드물어지다 보니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유도 아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채용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도 여성을 '사무실의 꽃'으로 여기는 의모를 필수로 보는 현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사회 역시 성폭력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학칙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새학생운동 실천 첫 번째 열쇠는 기층건설, 일꾼혁신으로 총여학생회를 튼실히 강화하는 것이다!

전여대협은 전국 총여학생회 대표자 협의체로서 학우들이 직접 선출한 총여학생회 대중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기층 조직이 미미하여 여학운동의 주체가 재생산이 되지 못하면서 조직적 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현상에 있다.
총여학생회는 대중조직으로써 다양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이나오나, 적은 일꾼들이 실무를 해나기에도 벅차게 되고 할 뿐 아니라, 대중관을 확고히 확립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일꾼 중심의 사업방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는 대학부터 전여대협까지의 경단기적 전망을 새우고 전여대협을 강화하자.
학우들과 민중들의 삶의 처지와 조건을 정확히 꿰찰고 대중 속에서 배우며 사업방법에서 근본적 혁신을 만들어가야하며, 더욱 많은 학우들 속에서 여학운동의 경제성을 함께 고민하여 더 많은 학우들을 주체로 세워나가고 기층체계를 복원하고 전일적인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전여대협 진지를 다져나가지.

두 번째 열쇠는 다양한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와의 동 큰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한다는 것, 그것자체만으로도 공통점은 무한할 것이다. 지금껏 우리들의 현상이 넉적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견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04년 5월한미당 '여파'의 경험과 교훈은 새로운 시도이자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와 연대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반성폭력 투쟁은 어느 단위를 막라하고 공동의 관심사이자 중요한 투쟁과제이다.
학내 반성폭력 투쟁은 성폭력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면서 실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었다. 인식의 변화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되었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 압목적으로 묵인 받조되던 다양한 성폭력 신고접수를 통해 해결되는 과정이 많아졌다.
대학 내 반성폭력 투쟁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 여론화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반성폭력투쟁은 학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자체적과가 아닌 공동의 힘을 모아 실천적인 연대를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아오고 대학 내 여성운동의 동 큰 연대가 필요하다.

새학생운동의 과제/내용/방도

과제
대학 내 반성폭력 투쟁을 통해, 우리사회 다양한 여성문제를 학내에서부터 의식화하고, 실천적인 투쟁으로 총여학생회의 경제성을 확립하자.
-학우 대중들에 근거하여, 대학 내 총여학생회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내오자.
-대학 내 여성문제를 사회이론화 시켜내는데 전여대협의 역할을 다하자.
-정견과 사상을 떠나 대학 내 여성운동의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공동행동을 실천시켜나간다.

내용
-전국적인 반성폭력 학칙 개정투쟁
-대학 내 모성보호 정취투쟁
-여대생 실업문제 해결투쟁

-시기 적절히 요구되는 투쟁

방도

: 2006년은 각기 다른 현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학 내 많은 여성운동 단위가 모여 지역별/전국적으로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정견과 사상을 떠나 함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파란 실천을 공동으로 벌여내어 신뢰를 쌓아가는 조직을 마련하자. 이것이 대학 내 여성운동의 새학생운동 실현의 첫 과제이다.

- 전여대협이 지역별 여학단위 모임을 먼저 제안하고, 직접 만나서 의조리화하여 지역 모임을 안착화, 활성화시켜내자. 예)서울 지역 여학단위모임
- 전국적으로 단일하고 실천력 있게 투쟁을 벌여나가며, 전여대협 것발아래 전여대협의 이름을 걸고 여학단위의 투쟁구호를 경화히 들고 투쟁해나가지.
- 대학 내 여성운동의 현행에 기반을 두고 향후 방향과 내용을 마련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을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하자.
- 전국 여학생운동의 위력을 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자.
- 예) 5월 한미당, 여성역사기행, 실업특위.

노년부총회

우익운동단위 → 기층조직 → 강간 → 신성대행진

노년부총회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 노년부총회 문제 제기

지금 4/7
4/9 ~ 10: H.C.H.

일어나는 과정?
치료를 "

정형치료를 받... MRI?
행동치료를 (강제수술...)

기층조직

기층조직 조직?
주요방안 "

학우들의
거기
거기
아리바이

노년부총회
총회. 기층조직
10년차 정기회
기층조직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
노년부총회 정기회